

우리나라 傳統的 婦德의 現代的 考察

An Implication to Traditional Concepts of Women's Virtues in Korea

東國大學校 師範大學

助教授 李 貞 德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Teachers, Dong Guk University

Assistant Prof. Lee, Chung Duck

<목 차>

I. 序 論

II. 本 論

1. 傳統的 婦德의 概念

(1) 內訓에 나타난 傳統的 婦德

(2) 傳統社會의 主要婦德

2. 現代社會에 비추어 본 傳統的 婦德

(1) 傳統的 婦德의 再評價

(2) 現代에 있어 바람직한 女性像

III.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traditional concepts of women's virtues which originated mainly from Confucian ethical thoughts.

According to Naefoon(內訓), a moral text for women which was highly respected in the Yangban society of Yi dynasty, the main virtues for women were as follows:

1. Fidelity; A woman had to be faithful for life to only one man who was, or was going to be, her husband.
2. Filial piety; Sons and daughters were supposed to dedicate their hearty love and respect to their parents, parents in law, and whole ancestors.
3. Obedience; A woman was required to be completely obedient to her husband as well as to her father. She was also supposed to be obedient even to her sons when she was old.
4. Diligence and Thrift; It was highly advisable for a woman to

work hard for household matters.

5. Hospitality; Hearty hospitality for domestic guests was one of the main duties of women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6. Maternal wisdom; a mother was supposed to be both stern and merciful to her children.
7. Kindness to relatives; Special Kindness to her husband's relatives was required as a duty to a married woman.

The above mentioned seven main virtues cannot be said to be fit, as such, to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Many of them are unacceptable when we evaluate them from the democratic viewpoint. But we still find some valuable ideas at the bottom of the concepts of these virtues. If we properly modify them so that they fit to our own age, they might become a source of wisdom even for the contemporary moral life.

It's tried to give some suggestions concerning how to modify the concepts of women's virtues in question, and then gave a sketch of an ideal figure of women in this industrial society.

I. 序 論

李朝時代의 儒敎의 倫理社會에서 파생되어 女人에게 씌어진 婦德이란 골래는 賢母 良妻라는 어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까지 理想的인 女性像을 묘사하는 대표적이며 전통적인 표현이 어 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女性像이, 現今 國內外的 社會要因에 의해 차츰 그 變貌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 볼 때, 그것은 産業社會化의 餘勢가 빛은 現代家庭의 構造 및 機能의 變化에서 그 근본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8·15 解放과 더불어 民主主義思潮의 도입은 男女同等意識을 고취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6·25 事變의 영향은 또한 많은 女性으로 하여금 就業戰線으로 나가게 한 분기령적 政變

이라 돌이켜진다. 그리고 1950~1960年代는 國內의 여건 및 西歐文物의 계속적인 유입으로 인하여 男女平等思想이 더욱 보편화되어 온 時期라 볼 수 있다.

특히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는 經濟高度 成長에 따른 女性의 社會進出率의 고조화 및 家庭經營樣式의 변화가 눈에 띄이는 한편,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Woman Liberation의 파동이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파급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러한 社會的動向이 女性의 전통적부덕을 구열시키는 계기가 돼주고 있는 것이다.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1977年度에 우리나라 女性敎育기관인 梨花女子大學校에서 <女性學>강좌를 유사이래 처음으로 개설한 일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는 80여개의 女性團體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女性의 문제가 크게 우리 사회에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傳統的婦德의 概念을 現代的인 視野로써 再評價해 보는 일은 意義깊은 일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전통적부덕의 개념이 현대 우리나라 특유의 社會背景이나 家族倫理의 테두리안에서 어떻게 再定義되어야 할 것인지를 摸索해 보는 데 두고 있다.

II. 本 論

1. 傳統的 婦德의 概念

15C~19C末에 우리나라에서 쓰인 女性教育資料로서는 女誠, 女論語 內訓(仁孝 文皇后 徐氏著), 女範, 규중요람, 우암선생계녀서, 士小節, 閨範, 내훈계녀서, 규합총서등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李朝時代의 女性教本으로서 三綱行實圖, 二倫行實圖, 小學, 女四書, 孝經, 訓蒙字會, 烈女傳諺解, 正俗諺解, 國朝五禮儀 등이 보인다.

그런데 이들 자료의 解說이 거의 같은 原典을 인용하고 있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成宗의 母后인 昭惠王后(1437~1504)가 찬술한 여성들을 위한 敎訓書인 內訓(성종 6년~1475년에 간행됨)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婦德의 概念을 추려 보기로 한다.

(1) 內訓에 나타난 傳統的 婦德

§ 內訓의 연유

世祖大王의 맏머느리었던 昭惠王后는 엄한 儒敎家門에서 자라 粹嬪에 책봉된 王后로서, 歷代王后中 비견할 수 없을만큼 뛰어난 婦德을 지닌 女性으로서 당대의 男尊女卑觀念과 敬順忍從之理에 異議를 갖지 않으면서 한편, 女性이 걸삼에만 만족치 말고 男子와 같이 聖學과 聖人謨訓을 배워야 함

을 강조하였다.¹⁾

§ 內訓의 內容

內訓은 漢文을 諺文으로 풀이하여 누구나 보기 쉽고 배우기 쉽도록 편찬된 교양도서로서, 상하계층 부녀자들에게 널리 읽혔다. 책의 구성은 다음 七章으로 되어 있다.

內訓目錄

一卷; 言行章第一 孝親章第二 昏禮章第三
二卷; 夫婦章 第四上下
三卷; 母儀章第五 敦睦章第六 廉儉章第七
內訓目錄終

§ 內訓書에 나타난 婦德의 內容

1) 言 行

여자의 言行之의 근본을 女四行으로 들었는데²⁾, 女四行이란 ① 婦德 ② 婦言 ③ 婦容 ④ 婦功을 말한다.

婦德이란 才明이 絕異함이 아니고 淸閑貞靜하며 守節整齊하여 利己有恥로 動靜有法함을 뜻했다.

婦言이란 辨口利辭를 뜻함이 아니라 擇辭而說하며 不道惡語하여 時然後에 言하되 不厭於人이 是謂婦言이라 했다.

婦容은 顏色美麗함이 아니고 鹽澣埃하며 服飾鮮潔하여 沐浴以時로 身不埃辱임을 뜻했다.

婦功은 반드시 技巧人을 말함이 아니고 專心紡績하며 不好戲笑하며 潔齊酒食으로 以奉賓客함을 뜻했다.

이상의 女四行에 관한 설명 외에도 內訓의 言行篇에서는 言語, 動作, 敎養, 行實, 食事, 處世 등에 관해 상세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2) 孝 親

儒敎 특히 周禮의 規범으로 일관됐던 李

1) 朴京子, 韓國近代 家政教育에 관한 研究——15세기부터 19세기말을 中心으로——誠信女子師範大學研究論文集 第六輯, 1973, pp.197~198.

2) 女四行之 規범은 '女敎'에서 인용한 것임.

朝時代에 있어 孝親은 가족윤리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며느리의 으뜸가는 역할은 孝親하는 일이었다.

子甚宜其妻이나 父母가 不說하면 出하고 子不宜其妻하나 父母曰하되 是善事我하니라 하면 子行夫婦之禮焉하여 沒身不衰하라는 原則이 있어 夫婦가 더 重한 것이 아니고 事親如何가 夫婦의 離合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니, 孝親의 原則³⁾을 지키도록 했다.⁴⁾

3) 婚 姻

이 시대의 혼인은 남존여비의 사상과 유교적인 복잡다재한 의식, 그리고 결혼당사자보다 孝를 위한 혼인으로써 여자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제약속에 얽매게 됨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혼인이 남존여비사상에 처해 있음은, 「夫有再娶之義 婦無二適之丈」이란 귀절에서도 들어나며, 「昏禮者는 將合二姓之好하여 上으로는 以事宗廟하고 而下로는 以繼後世也이니 故로 君子가 重之하니 是以로 婚禮에 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를 皆主人이 筵凡於廟하고 而拜迎於門外하고 入하여 揖讓而升하여 聽命於廟하는 것은 所以敬慎重正婚禮也이다(內訓婚禮)」에서 婚禮에 따르는 복잡한 의례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결혼의 목적이 다분히 孝親에 있음은 전술한 바 있으며 여자인 경우는 특히 장차 孝를 행하기 위해 출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더하여 여자에게 있어 혼인이란 三從의 제약중에서 第二의 제약인 子아비에게 복종하는 「適人從夫」의 羈絆속으로 끌려들어 가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 從夫의 과정이 從夫에서 그치지 않고 지

아비를 중심한 舅姑姉妹등 친족들에게 더욱 복종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제약은 三重四重으로 과중된다 하겠다.⁵⁾

4) 夫 婦

이 시대의 夫婦의 規箴은 곧 부녀의 규범을 뜻한다 할만큼, 부부생활에 있어 부녀에게만 강력한 율법이 적용되었다.

내훈에서 시사하는 아내상은 敬順忍從의 아내이다. 夫天婦地의 原則밑에서 夫有再娶之義이나 婦無二適之丈으로 不事二君해야 하며 夫婦의 琴瑟을 敬慎重正而後親之하는 것이라 하였다.⁶⁾

5) 母 儀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賢, 嚴, 義, 慈를 겸비해야 함을 孟母·呂母·伊川母들의 훌륭한 母像의 행적을 들어 설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시대의 어머니像으로서는 자애롭되 엄격한 규범속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凡子婦가 未敬未孝이면 不可遽有憎疾이오, 姑教之하되 若不可敬然後에 비로소 怒之요, 若不可怒然後에야 笞之하니 屢笞而終不改어든 子放婦出이니 然 亦不明言其犯禮也니라」(內訓夫婦)라는 귀절에서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엄격한 자녀 교육방침을 취했음의 한 예를 볼 수 있으며 또한 며느리를 친자식처럼 가르치려고 한 점을 엿볼 수 있게 한다.⁷⁾

6) 教 睦

돈목이라함은, 출가한 여자가 동서, 媿叔 시누이등과 화복하게 지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親族간의 가까운 인연을 아끼며 먼

3)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到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4) 朴京子, 앞의 논문, p.15.

5) 金智勇, 「內訓」에 비취친 李朝女人들의 生活相. 亞細亞女性研究, 淑明女大, 1968.

6) 朴京子, 앞의 논문, p.199.

7) 金智勇, 앞의 논문, pp.196~197.

저 베풀되 값음을 구하지 말며 조그만 利得을 다루어 至親의 큰 덕을 잃지말것 등, 인간 간의 돈독의 근본요결을 쓰고 있다.

7) 廉 儉

「한 바구니 밥을 먹고 한바가지 물을 마셔 더러운 마을에 산다고 사람들은 걱정해마지 않지만, 그 즐거움이 가시지 않으니까야말로 賢함이여 回함이로다」(一簞食一瓢飲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回也⁸⁾라는 귀절에서도 밝혀지듯이 이조시대는 청렴, 결백, 검소의 덕목이 고양되었다. 따라서 가사를 돌보는 이조여인들은, 부유하여 오히려 삼가고 가난하되 불안해하지 않는 정신을 몸소 베풀고 체득하며 살았던 것이다.

(2) 傳統社會의 主要婦德

이상 살펴본 바를 통해 傳統社會에서 婦女에게 강조한 주요 德目を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三從之義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좃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좃으며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좃으라는 덕목이다.

夫天婦地의 원칙하에 夫唱婦隨로써 敬順 忍從하며 남편에게 專心하는 아내일 것이며, 媿父母를 모실 때 틀리는 일을 말쑥해도 是非를 가리고 曲直을 따져 爭分하지 말라는 ‘曲從’의 덕목등에서도 三從之義의 道를 찾아볼 수 있다.

○ 孝 親

여자가 시부모에게 효친하는 것은 결혼성립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덕목으로서, 七去之惡속의 ‘不事舅姑’가 으뜸으로 포함되

어 있으며 奉祭祀를 며느리에게 강조한 점에서도 孝親은 婦女에게 중요한 덕목임을 알 수 있다.

○ 不更二夫

‘貞烈夫人’ ‘守節寡婦’등을 강요한 朝鮮時代에 있어, 女人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純潔, 貞淑 및 貞節이었다.

○ 勤勉과 儉素

家事技術과 勤儉節約에 관한 덕목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즉 針線, 紡績, 蠶織등의 家事技術은 위로 士大夫의 가정으로 부터 아래로 庶民에 이르기까지, 여성이면 누구나 습득해야 하는 일로서, 때론 같은 조건의 혼인일때는 남자측에서 이러한 家事技術의 솜씨가 좋은 여자를 택하기도 했다.⁹⁾

○ 接 賓

이조시대 부인의 道에 있어 손님대접을 지성껏 하는 것은 필수덕목이었다.

李瀾은 그의 ‘星湖僿說’에서 여자의 교육은 朝夕供饋와 奉祭 및 接賓의 예절이면 족하다’고 하였다.¹⁰⁾

○ 嚴母·慈母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胎敎와 幼年期教育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어머니像으로서 嚴함과 인자함을 갖추어 지닌 女人을 귀감으로 삼고 있다.

○ 敦 睦

媿家の 親戚과 和睦하라는 덕목으로서, 叔妹는 男便의 血緣이므로 절대로 輕視해서는 안되며, 이들의 마음을 구하는 데는 謙順보다 나은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2. 現代社會에 비추어 본 傳統的 婦德

본장에서 傳統的 婦德을 再評價하기에 앞서 三從之義, 七去之惡, 貞烈夫人, 不事二

8) 論語 雍也 第九.

9) 孫仁株, 韓國女性教育史, 延世大出版部, 1977, p. 75.

10) 孫仁株, 앞의 책, p.73.

夫, 守節寡婦, 夫唱婦隨 등의 개념으로 대표된 우리나라 傳統的 性別役割 期待가 서서히 쇠퇴하기에 이르는 社會的 흐름을 살펴 보아야겠으나, 지면관계로 생략키로 한다.

(1) 傳統的 婦德의 再評價

본장에서는, 1970년대 후반인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傳來的 婦德을 비판하고 나아가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어울리며 未來志向의 女性像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본론을 전개함에 있어, 前章에서 집약해낸 主要婦德의 항목을 좇아 서술해 가려 한다.

○ 三從之義

이 규범은 男先女後와 男尊女卑思想이 투철하다. 그 시대 남성의 利己心의 발로로 나타난 본 규범은, 女性을 自立할 수 없는 人間이도록 그들의 從屬된 位에 놓음으로써 女人이 人間으로서의 自我追求의 길을 막고 있다.

女必從夫의 觀念일색이던 이 시대에 女子는 戶籍上 出嫁後 親家에는 姓名이 없으며 族譜의 記載에는 出嫁女의 婿名을 기입할 뿐이며 婦女子는 家長의 認定下에 對外的 行爲가 결정되는 등¹¹⁾ 철저히 女性은 家長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女子無識 反是德」이란 덕목 역시 여자의 비판력을 꺼려 지혜의 싹을 무뎠려버리려는 의도가 짙다.

夫婦의 道를 위시한 모든 人間關係가 平等하게 놓여진 現代社會에서는 三從의 道는 사라져야 마땅할 것이며, 이 점 서서히 지양되고 있기도 하다.

男女關係는 主從의 유대를 벗어나, 相互協力 및 補完關係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孝 親

父母에 대한 자식의 孝道가 人倫의 根本이라는 가르침인 傳統的 孝觀은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올바른 규범이긴 하나, 몇가지 불합리한 점을 낳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점이 孝道의 지나친 形式 위주에 흐른 표현방식이다. 지나치게 形式的이고 儀例的인 祭祀나 喪禮法(昏定晨省, 謹喪葬등)은 現代에 있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 하겠다.

曲從의 道 역시 批判을 받아야할 덕목으로서, 시부모를 겸손한 마음가짐과 공손한 태도로 섬겨야 함에 있어서는 찬양할만하나 덮어놓고 어른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된다고 하는 규범은 시정을 요하고 있다.

또한 孝親은 男女를 막론하고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시부모뿐 아니라 친정부모를 받드는 데도 저항감이 없는 풍토가 무르익어야 할 것이다.

婚談의 성사 절차가 당사자의 의사가 무시된 채 兩家父母의 합의하에 좌우되며, 子女는 절대적으로 이에 복종해야 하는 도리 역시 불합리한 점이다.

○ 不更二夫

女性 最高的 道德의 指標로서 婦女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된 貞烈 역시, 男性위주의 규범인 것은 자명하다. 남성에게는 一夫多妻制와 再娶, 男子專權의 無因離婚등이 허용되면서도, 女性에게는 指腹婚이나 幼時에 약혼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寡婦의 身分이 되어 버리는 일이나, 일반 과부의 再婚이 禁止되고 再嫁女所生子의 出世길을 막는 규정¹²⁾ 등은 人間尊重 및 平等思想에 배리되는 불합리하다. 더구나 王亂·胡亂時 敵軍에게 능욕당한 婦人을 先行으로 간주하

11) 孫圭觀, 韓國女性教育思想에 관한 研究(Ⅰ)——儒學者의 女性觀을 中心으로——, 教育史 教育哲學. 第2號, 韓國教育學會 教育史教育哲學研究會, 1978, p.41.

12) 이들에게는 任路와 赴試가 허용되지 않음.

여 離婚시킨 점에 있어서는 그 비정할만큼 독단적이던 男性위주 사회의 병폐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七歲男女不同席 不共食’이라는 규범하에 女性의 祖·父·舅·夫·兄弟·叔등 親族 이외의 男性과의 面接·社交를 惡德視한 점등과¹³⁾ ‘內外之別’로써 男女의 地位를 엄격히 구별하여 門밖出入을 엄금하며 쓰개치마를 두르게 하는 등의 男女隔離 및 女人幽閉世態는, 朝鮮朝以後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거니와, 더구나 現代에 이르러 그 비판의 여지가 매우 크다.

男女交流가 자유스러워진 오늘날, 異性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한 친숙이야말로 바른 性教育을 유도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男女隔離思想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더구나 女性에게만 再嫁를 금지 내지 이를 否定視하는 풍토는 극히 온당치 못하다.

○ 勤勉·儉素

인간으로서 勤勉·儉素한 生活態度는 남녀를 불문하고 지녀야할 기본 자질이다. 그런데도 전통사회에 있어 본 덕목이 女性에게만 강조된 점은 불합리하다.

紡績과 紡織, 衣服製作 및 손질, 음식만들기, 淸掃, 接客客에 있어 儉朴·淨潔·勤勉토록 하며 金錢과 財物을 간수함에 있어서도 廉儉·節儉·勤儉히 하며 財物을 존중히 쓰도록 하는 것이 德을 쌓는 도리라 가르친 바는¹⁴⁾, 消費와 사치성향으로 치달는 오늘날 특히 이어받을 만한 규감이라 하겠다.

그러나 家事內容의 社會이양화로 主부의 家事勞動이 경감되었으며 家庭管理者의 자질 역시 ‘머리를 쓰는’ 영역이 중요시된 現代에 있어, 婦德의 內容에 살림솜씨를 과거 처럼 강조하는 일은 부적합한 일이라 하겠다

○ 接 賓

내집에 온 손님대접을 융숭히 해야 한다는 전통적 接賓의 덕목은 인간존중 사상과 사교생활의 예법을 상세히 가르친 점에서,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항목이라 하겠다. 즉 시간이 바뀐 현대생활양식에 있어서 과거의 接賓의 內容에 다소의 수정을 가한다면 오늘날에도 좋은 윤리가 될 것이다. 허식에 흐르지 말고 제집의 분수에 맞게 정성껏 손님을 모시도록 강조하는 등이 그것이다.

○ 嚴母·慈母

胎敎로부터 자식의 양육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유의한 內訓의 母儀篇은, 오늘날에도 빛나는 가르침이 많다. 특히 嚴母와 慈母라는 상반되는 자질을 동시에 지닌 조화로운 母像을 追求한 점은, 절묘한 덕목이라 사료된다.

兒童中心思想의 그릇된 해석이 빚어낸 결과로써 子女를 과잉보호하는 어머니가 늘고 있는 현대에 있어, 嚴·慈母로서의 資質을 구유한 母像에의 요청은 필연적인 듯이 보인다. 더구나 朝鮮朝에 비해 오늘날 어머니의 자녀교육자로서의 소양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서도 이 규범의 중심사상을 이어받은은 좋은 일이다.

○ 敦 睦

화목한 人間關係를 유지해야 함은 東西古今을 통해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기본윤리이다.

그러나 전통적 부덕에 비취진 敦睦은, 유독 여성이 娼家의 兄弟와 親戚에게의 도리로서 강조되고 있으며, 오로지 여성은 참고 받들며 시가맥과 적응하라는 교시는, 시가 맥입장을 위해서는 이로운 측면이나 여성개인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지나친 滅私를 강요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무릇 인간관계는 理解와 調和를 위한 兩者간의 노력속에서

13) 孫圭觀, 앞의 논문, p.41.

14) 朴京子, 앞의 논문. p.239.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보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받드는 편이 도리만을 강조한 점은 다소의 위화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오늘날, 家族 내지 親族間의 유대가 약화돼 가고 人間愛가 발로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든 세태에 있어, 敦睦思想의 본질은 現代에 있어서도 값진 倫理라 照明된다.

(2) 現代에 있어 바람직한 女性像

본장에서는 첫째, 우리 여성이 당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現實을 검토해 보고 둘째, 이러한 韓國現實에 대처할 수 있는 資質 등에 대해, 사회조사자료를 참고로 하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韓國의 現實

○ 女權伸張에 대한 要請

役割遂行者로서의 '女性'만이 존재하고 '人間'으로서의 女性이라는 점이 까맣게 망각된 傳統社會로부터 고배가 풀려진 女性이, 한때(특히 八·一五해방직후 수년간) 방황하던 過渡期가 점차 그 軌도를 찾아 安定하기 시작한 기미를 우리는 '女性の 自我實現'이라는 이미지 浮刻을 통해 살필 수 있다.

1950년의 6·25 動亂의 餘勢와 혹은 부녀자 개개인이 겪은 참화 등은, 그때까지 집안에 안주해 있던 여성들을 불가피하게 대문 밖으로 메밀어 生活戰線에 나왔게 함으로써 여성으로 하여금 과거의 受動的 女性像에서 탈피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주었음도 사실이다. 여기에 1960~1970년대에 이르는 동안 팽배해진 고도의 경제성장 추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취업에 종사토록 하는 자연

스러운 풍토를 낳게 함으로써 自立人으로서의 여성상을 확립해 갔으며 한편, 여성의 高等教育참여에의 기회는 여성을 他律的인 自我에서 自律的인 自我어로 開眼시키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게 했다.

그외에도 西歐文物의 지속적인 유입은 8·15에 도입된 男女平等思想을 深化시켜 왔으며, 더우기 1975년도 세계여성의 해의 파동도 1970년대 후반의 우리나라에 만만찮게 상륙하고 있다. 그리고 1977년도 梨大에서 開設된 女性學講座¹⁵⁾의 효시는 젊은 세대로 하여금 향후, 女性으로서의 自覺에 기여하는 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나라가 당면한 人力不足 現象 혹은 所得增大慾求들이 또한 여성을 밖으로 불러내는 데 무시못 할 구실을 하고 있다. 여기에 傳統的 家族制度 및 家族關係의 崩壞(즉 核家族化 現象) 및 家庭經營樣相의 變化(특히 男女兩性の 家庭內 役割變化)가 전통적 여성관에 시정을 요하도록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는 여러 要因들이 한국여성에게, '여성의 社會的 業績遂行'이라는 價値를 점차 드세게 인식하도록 부채질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잠시, 社會業績遂行(사회봉사나 취업등)이 곧 여성의 유일한 自我實現手段인가를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즉 '家庭主婦'라는 소임이 마치 自我實現과 거리가 멀며 나아가 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가정주부'와 '社會的 業績遂行'을 별개시하는 二元論的 思考方式은 이 시점에서 再考해 볼 필요를 느낀다.

우리나라 현실은, 就業率 上昇의 통제자

15) 女性學講座的의 교재인 女性學新論은총 409p.로서, 그 주요목차는 I. 여성운동의 이념. II. 여성의 생리와 심리. III. 여성의 문화구조. IV. 여성과 정치경제 등이다.

료에도¹⁶⁾ 불구하고 아직까지 ‘主婦’가 대부분인 실정이며 더우기 여성을 위한 마땅한 일터가 극히 부족한 형편이다.

그리고 더욱 긴박한 문제로서, 主婦인 여성 노동자를 협조할 사회복지 기관의 미비라는 문제점이 우리앞에 가로 놓여 있다. 核家族化社會로 이양되고 있는 우리나라 직업 여성에게 있어 이 점 심각한 문제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韓國의 現實에서 요청되는 女性像

은 무엇일까? 이의 해답이 곧 的代現 婦德을 모색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社會調査에 나타난 現代的 婦德

연구자가 現代的婦德의 概念摸索을 위한 자료의 일단으로써, 서울시내 거주자 총 1506명(無作爲 추출)을 대상으로 조사한 “現代에서 요구되는 主婦像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자유기재식 설문 의 응답내용을 분석해 본 것이 <표 1>이다.

A. 조사대상자

고 등 학 생		여 대 생			성 인				총 계
Y고교 3년생	E여고 2년생	H大	D大	A大	중고교교사	사대교수	교육행정가	학부모	
210명	192명	260명	286명	76명	187명	51명	79명	165명	
402명		622명			482명				1,506명

B. 조사방법 : 자유기재식 설문지법

C. 조사날짜 : { 1차—1976년 4월~5일
2차—1978년 9월~10일

D. 자료처리법 : 조사대상자 개개인의 응답내용에서 <주부의 자질>에 대한 주된 개념을 1~2 항목씩 뽑아 이를 검토하여, <표 1>과 같은 18개 항목으로 類目化 하였음. 그리고 그 빈도를 종합하였음. (항목별 총빈도 = N)

총순위를 보면 총 18 항목중, 자녀교육(1위)→현모양처(2위)→진취적이며 자기완성을 위한 노력(3위)→남편 섬기기(4위)→화목(5위)→근면·검소(6위)→합리적 사고(7위)→이해심·자애(8위)→책임감·성실(9위), 부모공경(9위), 생활력(9위)……등이며 낮은 순위로는 협동·봉사(16위—가장 낮은 순위임)→순결(15위)→창조성(14위)등이다.

위결과를 보면 대체로 現代女性으로서 필요한 덕목들이 지적되고 있음은 알 수 있으나, <현모양처>라는 막연하고도 전통적인 여인상 묘사의 어휘를 사용한 응답률이 2위를 점유하고 있음이 눈에 띄이는 비판점이

다. <현모양처>의 개념을, 본조사에서 응답토록 요구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가장 낮은 응답률인 <협동·봉사>는, 아직도 가부장제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에 있어 내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타인—인류—을 의식하는 면이 얇은 국민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사료되어, 획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풍토의 조성을 절감케 한다. 한편, 전통적부덕에서 孝親을 으뜸으로 삼았던 점과 비길 때, 현대의 9순위는 10대(고교생)·20대(여대생)·성인(교육자, 학부모, 교육행정가 포함)을 통해 그 지적 순위가 낮게 나타나 있어, 결혼에서의 父母의 비중은 가벼운 것으로 풀이된다.

16) 金貞愛, 女學生이 尊敬하는 女性像에 關한 研究(1978)에서도, <협동>(21위—끝순위임—), <自律>(18위)<개혁>(17위), <창조>(16위)등이 극히 낮다.

〈표 1〉 협대주부의 자질

구	분		고등학교										대학				인				총 계								
			고등학					교					女大生		교		학부모		계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N	%					
			N	%	N	%	N	%	N	%	N	%	N	%	순위	순위	N	%	순위	순위			N	%					
근면·결소	11	9.1	6	14	11.6	5	25	20.7	6	43	35.5	9	13	10.7	2	10	8.3	5	30	24.8	3	53	43.8	2	121	100	6	(7.3%)	
이해심, 자애		14			13				18	72	87.8	3			9	5	6	10	5	6	15	10	12	15	82		8	(5.0%)	
화	15	12.2	5	18	14.6	3	33	26.8	5	44	35.8	8	8	6.5	3	7	5.7	8	31	25.2	2	46	37.4	4	123		5	(7.5%)	
책임감, 성실	5	6.5	11	5	6.5	8	10	13	12	47	61	7	3	3.9	6	9	11.7	6	8	10.4	12	20	26	11	77		9	(4.7%)	
합리적 사고	4	4.7	12	3	3.5	10	7	13	14	58	68.2	5	3	3.5	6	6	7.1	9	11	12.9	11	20	23.5	11	85		7	(5.1%)	
자립성, 자물성	6	10.7	10	2	3.6	11	8	14.3	13	16	28.6	15	5	8.9	5	10	17.9	5	17	30.4	8	32	57.2	8	56		12	(3.4%)	
활 동 성	7	11.3	9	13	21	6	20	32.3	7	17	27.4	14	2	3.2	7	8	12.9	7	15	24.2	9	25	40.3	9	62		10	(3.8%)	
자아 완성을 위한 노력	17	10.7	4	20	12.6	2	37	23.3	4	84	52.8	1	5	3.1	5	12	7.6	4	21	13.2	6	38	23.9	7	159		3	(9.6%)	
진 취 성	1	2.7	13	4	10.8	8	5	13.5	15	23	62.2	13			9	3	8.1	12	6	16.2	13	92	4.3	16	37		14	(2.2%)	
창 조 성	1	3.6	13	1	3.6	12	2	7.1	16	26	92.9	12			9										28		15	(1.7%)	
순 결	11	23.9	6	4	8.7	9	15	32.6	10	17	37	14	7	15.2	4				7	15.2	13	14	30.4	12	46		13	(2.8%)	
예의, 순중, 정숙		14	1	3.9	12	1	3.9	17	13	50	16	1	3.9	8	5	19.2	10	6	23.1	14	12	46.2	13	26		16	(1.6%)		
협동, 봉사	11	14.3	6	7	9.1	7	18	23.4	9	48	62.3	6			9				11	14.3	10	11	14.3	14	77		9	(4.7%)	
부모 공경	47	32.9	1	20	14	2	67	46.9	3	34	23.8	10	5	3.5	5	14	9.8	2	23	16.1	5	42	29.4	5	143		4	(8.9%)	
남면 섬기기	33	16.8	2	42	21.3	1	75	38.1	1	75	38.1	2	8	4.1	3	13	6.6	3	26	13.2	4	47	23.3	3	197		1	(11.9%)	
자녀 교육	28	14.3	3	42	21.4	1	70	35.7	2	64	32.7	4	14	7.1	1	15	7.7	1	33	16.8	1	62	31.6	1	196		2	(11.9%)	
현모 양처	8	10.4	7	5	6.5	7	13	16.9	11	25	32.5	11	5	6.5	5	15	19.5	1	19	24.7	7	39	50.7	6	77		9	(4.7%)	
생 활 력	6	10.2	8	16	27.1	4	22	37.8	8	16	27.1	15	3	5.1	6	4	6.8	11	14	23.7	10	21	35.7	10	59		11	(3.6%)	
사회 참여																													
계	211		217			428			722			82		136		283		501							1651				

※ %는 항목별 N

※ 각 군별 순위는 조사대상 群別 순위임

※ ()속의 %는 항목별 본 조사자 총수

여대생을 제외한 모든 응답군이 1위로서 <자녀교육>을 들고 있음에 비해, 유독 20대의 여대생만이 현대주부의 자질로서 <자아달성을 위한 노력 진취성>을 들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리고 주부됨의 소양으로서 <자녀교육>이 으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고무적 현상인 동시에, 子女養育에의 意義를 상실해 가고 있는 西歐社會와 대조가 된다.

<남편 섬기기>에 대한 가치를 모든 群에서 5순위이내로 지적하고 있는데 비해 여대생만이 10순위로 밀려나 있는 점도, 女性이 대학교육기간중 自我省察의 기회를 갖게 되는 동시에 急變하는 社會속에서 Woman Libefation의 물결을 타고 있지 않나 풀이된다. 그러나 이들 여대생들이 4위로서 <현모양처>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二重구조적인 가치체계가 병존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참여> <협동·봉사>가 理想主義 경향에 놓여있을 青年期의 이들에게 조차 극히 낮다는 것은, '主婦는 순수히 主婦로만'이라는 사상에 지배당해 있는 듯 풀이되어, '現代主婦는 세제속의 女性으로'라는 넓은 시야의 女性像摸索에 아쉬움이 있다. 기성세대群(성인群)보다 (6순위) <생활력>을 지적하는 율이 낮은 것도 (고교생—11순위, 여대생—11순위) 주목된다. 생활을 감당해 본 성인群에 있어 더욱 여성의 生活力에 대한 요청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여교사군은 1위로서 <생활력>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표 2>는 "현대남편의 자질로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자유기재식 설문에 대해 지적한 특질을 항목별로 간추린 것으로써, 본 설문은 현대에서 요청되고 있는 남편의 자질을 알아보고자한 데 있다.

전체통계에서 보면, 부인을 아낀다(1위)

생활력(2위)→성실·책임감(3위)→가정적(4위)→인격·교양(5위)→자녀교육에 관심이 크다(6위) 등이 총 13항목중 고위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의 남편像과 현저한 현상은, 부부간 愛情중심으로 영위되는 '가정적'이며 생활력 강한 인간상이다. 즉, 인격적요인 보다는 실질적 요인을 상위로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부모공경>은 고교생과 여대생에 있어 각각 9순위, 10순위이며 성인群의 기술 속에는 눈에 띄이지 않는점 등, 現代의 夫婦中心 家族倫理를 실감케 한다. <봉사>에의 관심은 主婦像과 마찬가지로 낮다. (11순위—가장 하위 순위)

<화목>에 대한 것은 主婦에서 보다(총 18항목중 5위) 男便像쪽이 낮다. (총 13항목중 8순위)

§ 現代가 要請하는 女性像

한 시대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하여, 집약된 시대윤리의 응결체로서 어떤 人間像이 그 시대인에게 차츰 선명히 부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앞에 부각된 像이 固定不變의 것도, 單一類型의 것도 물론 아니다. 이 점을 상기할 때 본 연구가 얼마만큼 現代가 요구하고 있는 女性像을 적절히 구현해 낼 수 있을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대로 現代女性이 지닐 資質은 다음과 같은 점들로 요약할 수 있을듯 하다.

○ 知性的인 女性

과거의 복종하는 女性像에서 知性을 구유한 여성상으로 변모해야 할 것을 현대는 요구하고 있다.

知性은 人間性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이다. 그런대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知性을 인정하고 계발하는 것을 주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남성본위의 朝鮮時代에 女子의 知性을 노골적으로 말살하려한 데서 비

〈표 2〉 현 대 남 편 의 자 질

	고 등 학 교										성						인							
	남					女					교 육 자			학 부 모			제		총 계					
	N	%	순위	N	%	순위	N	%	순위	N	%	순위	N	%	순위	N	%	순위	N	%	순위	N	%	순위
생 활	6	3.97	57	4.64	513	8.61	5100	66.23	17	4.64	313	8.60	418	11.92	438	25.16	4	151	100	2(18.5%)				
화	2	6.06	75	15.15	67	21.21	620	60.61	92	6.06	52	6.06	62	6.06	76	18.18	7	33	"	8(4.0%)				
성 실·책 임 감	10	6.71	411	7.38	221	14.09	473	48.99	24	2.68	415	10.07	336	24.17	155	36.92	2	149	"	3(18.2%)				
합리적 사고·공사 구별	1			3.57	81	3.57	1023	82.15	82	7.14	5		2	7.14	74	14.28	9	28	"	9(3.4%)				
업 격·위 엄							266	67	11				1	33.33	81	33.33	10	3	"	11(0.4%)				
과 용·자 애	5	12.82	6	5	12.82	727	69.24	61	2.56	61	2.56	75	12.82	57	17.94	6	39	"	7(4.9%)					
봉 사							266	67	11				1	33.33	81	33.33	10	3	"	11(0.4%)				
신 념	2	3.77	73	9.09	73	9.09	826	78.79	7		3	9.09	51	3.03	84	12.12	8	33	"	8(4.0%)				
인 격·교 양	2	13.33	7	2	3.77	9	50.94	34	4		1	1.89	7		1	1.89	10	53	"	5(6.5%)				
부 모 공 경	19	12.5	119	12.5	138	25	155	36.18	312	7.89	116	10.54	231	20.39	259	38.82	1	152	"	1(18.7%)				
부인을 아꼈다	15	32.61	29	19.57	424	52.18	313	28.26	104	8.70	41	2.16	74	8.70	69	19.56	5	46	"	6(5.6%)				
자녀교육에 관심이 크다	11	9.91	318	16.22	229	26.13	231	27.93	58	7.21	221	18.92	122	18.92	351	45.94	3	111	"	4(13.6%)				
가 정																								
계																			816					(100%)

* %는 항목별 N

* 각.군별 순위는 조사대상 群別 순위임

* ()속의 %는 항목별 본 조사자 총수

못된 인습의 일단이다. 말이 많은 여자, 사리를 따지려드는 똑똑한 여자, 많이 아는 여자를 달가와 하지 않는 풍토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知性은 批判力의 母體이며 智慧의 샘이다. 現代를 사는 데 있어, 크게는 價値觀의 선택에서 부터 작게는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신변처리에 이르기까지 바른 判斷力을 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더구나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구실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상기할 때, 고도의 知性을 구비한 총명한 女人像은 現代에 있어 바람직한 女性像이라 아니할 수 없다.

○ 能動的인 女性

현대는 과거의 受動的인 女性像에서 能動性을 지닌 女性像을 요구하고 있다.

매사를 '팔자 소관'으로 돌리는 운명감, 참는 것이 제일이라는 체념철학의 잔해가 오늘날까지도 여성의 체질속에 남아있는 것을 본다. 앞장서는 여자, 진취적인 여자, 행동력이 강한 여자가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남성에 의해 제시된 婦德을 따라 다소곳이 주어진 바를 순종하는 朝鮮朝時代 구법속의 여성의 殘影에서 男性의 '便宜'가 보장되며, 그런 뿌리 내려진 古典女人像에서 일말의 향수조차 느끼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現代의 특성은 靜的인 女性에서 動的인 女性을 요구하고 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서는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기한 현대생활에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自我 追求, 自己表現力, 問題와 맞서 해결해 가는 行動性 등은 現代를 사는 귀한 資質이다.

이러한 능동성과 행동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투철한 信念과 굳건한 意志力, 자기가 택한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責任感 등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創意的인 女性

가정관리면에 있어 女功, 이른바 살림솜씨가 좋은 여성상이 환영받던 시대로부터 현대는 머리를 쓰는 여성, 생활전반에서 창의성이 발휘되는 여성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가정은, 그 家事內容의 많은 부분이 사회에 이양되었으며 또한 전열기구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된 때문이다.

한 가정이 그 가정의 共同理念을 中心으로 영위된다는 점, 각양각색인 家族員들의 慾求를 조정해야 하며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나, 현명한 消費者로서의 能力을 갖추어야 된다는 점에서나, 가정의 餘暇管理 문제가 차츰 비중이 커가는 이즈음이라는 점에서 또는 생활의 타성에 윤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때그때 새롭고 기발하며 적절한 着想이 한 가정의 주부로부터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제반 技術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能率社會를 표방하는 現代생활에 있어서는 어느면 高度의 科學技術이 요구 되고 있기 도 하다.

現代女性의 資質 中, 능력과 合理精神의 발휘는 매우 중시되는 덕목이라 하겠다.

○ 同僚로서의 女性(Compassionship)

남편과 從의關係에 놓였던 女性에서 탈피하여 남편과 인간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서서 그의 精神的인 同僚者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좋은 對話者로서의 素養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부인의 덕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람사이에 共感을 일으키는 성의있는 대화자가 될 수 있으려면, 理性을 세련시키고 感性을 제발하며 거기에 따뜻한 人間愛를 지닌 女性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夫婦間의 끊임없는 對話를 통한 共通의

세계의 향유야말로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본이라 하겠다.

○ 調整力·適應力이 있는 女性

調整力이란 자기들레의 인간들에 파고 들어 그들간의 알뜰이나 갈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관심 및 능력이다. 그리고 適應性이란 生活에 융통성을 주는 人間性의 特質로서, 調整力의 발휘는 人性特性中, 풍부한 적응력을 전제로 가능하다.

家族集團의 마찰을 적게 하고, 理解와 親愛가 감도는 화락한 분위기로 이끌 수 있는 人間 間의 이러한 調整力은 現代女性의 중요한 자질중의 하나이다.

○ 教育者로서의 女性

現代女性은 가정교육을 위한 識見이 탁월해야 한다. 과거에 비하면 女性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現代社會에서 여성은 教育者的 資質을 그 인성속에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子女를 참담게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총명과 子女의 적성개발이라는 점이 중요하겠다. 요컨대 量보다 質的으로 좋은 사랑을 줄 수 있어야겠다.

○ 世界속의 女性

좁은 가정의 울타리에 安住하는 안일하고 목이 좁은 女性像에서, 자기를 이웃사회 나아가, 전세계에 열어놓는 폭넓은 여성상이 요청된다.

세계의 움직임에 민감히 파악하여 자기생활에 적용하며, 자기 가정이 당면한 문제들이 곧 人類全體문제와 관련을 갖고 있다는, 全體속에서의 '나'의 位置를 가름해 볼 수 있는 視野넓은 女性의 資質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博愛를 밑받침한 人類에의 기여정신에 투철한 人間像, 智性意가 조화된 여성상은 특히 이 시대에 요청되고 있다.

○ 自我實現의 女性

現代는 아내, 며느리, 어머니등 한 가정

안에서 기대되는 역할 수행자로서의 여성이 미지만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가 女性이기 전에 '人間'일 수 있어야 한다.

自我實現은 男性만의 專有物일 수 없다. 女性 역시 自我實現이라는 人間本然의 慾求를 충족시켜야 한다. 人間的으로 행복한 사람만이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現代女性은, 결혼함으로써 그에게 맡겨진 바 역할을 떠나서도 獨立人으로서 그의 삶을 버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獨立性과 自律性이 풍부한 女性像은 현대여성의 理想이라 하겠다.

한편, 타고난 자기 소질의 계발 역시 자아실현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무단한 自我探究, 차분한 自己연마 등은 현대여성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서 또한 기대된다.

이상에서 女性의 主婦로서의 資質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이제 이 절을 막음하면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가정주부로서의 여성'과 '사회참여자로서의 여성'을 별개시하는 우리나라 二重價值構造에 어떻게 여성이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女性就業率은 아직도 先進國家에 못미치고 있으며 女性人力의 社會進出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은 상당히 많다. 이 연구에서는 일일히 그러한 要因을 열거하지 않겠거니와, 가정주부의 직업을 돕는 사회기구(예컨대 탁아소등)조차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 실정은, 설혹 여성을 부르는 직장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여성에게 허용된 일터도 극히 협소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덮어 놓고 여성이 사회진출을 피하거나 나아가 自我實現手段

을 받드시 취업을 통해서만 찾는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 여성이 비록 가정주부의 신분에서 머문다해도, 그의 생활영위방식에 따라 그는 얼마든지 사회참여자, 자아실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Ⅲ. 結 論

본 연구는 우리나라 傳統的 婦德을 現代의인 차원에서 照明해 보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전개되었다.

傳統的 婦德을 파악함에 있어 본 연구는 朝鮮王朝의 照惠王后의 內訓을 中心으로 살펴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傳統的 德目으로 밝혀진 바로는 다음과 같다.

즉 ① 婦女子의 職責으로서 事父母舅姑, 奉祭祀, 與妯娌, 教子女, 御婢僕등과 ② 婦女子의 行實규범으로서 柔順, 敦睦, 端正, 寬嚴, 貞淑들로서 이를 現代라는 時點에서 再評價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들어났다.

첫째 긍정적인 덕목의 대표적인 것들로서는, 敦睦과 孝親, 母儀 등을 들 수 있어서, 이들의 다소의 지엽적인 수정은 불가피하겠으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인간간의 화목과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을 강조한 倫理는 現代인으로서 사야할 지혜가 담겼다.

둘째, 부정적인 덕목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三從之道, 男女有別 및 男女 격리사상, 혼인이나 장제의 번잡한 절차 등은 현대생활에서 과감히 수정되어야 할 덕목들이다.

본 연구의 사회조사를 통한 자료에서 밝혀진 現代主婦의 資質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되고 있다.

총 18항목으로 정리된 특질의 빈도별 순

위를 보면, 자녀교육(1위)→현모양처(2위)→진취적이며 자기완성을 위한 노력(3위)→남편섬기기(4위)→화목(5위)→근면·검소(6위)→합리적 사고(7위)→이해심·자애(8위)→책임감·성실, 부모공경, 생활력(9위) 등이며, 낮은 순위로는 협동·봉사(16위)→순결(15위)→창조성(14위) 등이다. 이러한 자료처리 결과는 대체로 현대여성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지목하고 있긴 하나, <현모양처>라는 모호한 표현은 현시점에서 비판되어야 할 듯하다.

가장 낮은 <협동·봉사>에의 요청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수직적 인간관계인 가부장제 전통의 잔유물이 다분한 것으로 사료되어, 내가정의 울타리를 뛰어 넘을 수 있는 他愛(人類愛)의인 女性像摸索의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한 現代女性의 바람직한 資質로서 知性, 能動性, 創意性, 同僚의(Companionship) 資質, 調整力, 適應性, 教育者의 素養, 世界속의 女性임을 자각하는 폭넓고 안목이 긴 여성, 그리고 自我實現의 女性像을 지적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李 効再, 金 周淑, 韓國女性의 地位, 梨大 出版部, 1979.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女性教育의 어제와 오늘. —여성교육자료 I.—1977.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來日의 女性과 教育. —여성교육자료 II.—1978.
- 梨大韓國女性研究所, 女性學新論, 1977.
- 한국교육개발원, 韓國人의 男性 및 女性役體觀, —세미나자료—1976.
- 김 활란 박사, 5주기 기념사업위원회, 한국여성의 어제와 내일.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6.
- 孫 仁銖, 韓國女性 教育史, 延世大出版部, 19

77.

- 崔 以順, 李 琦烈, 沈 致善, 韓國家政學史,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7.
- 김 중출 역, 여사서, 문화각, 1966.
- 斯文學會編, 승우암계녀서, 齊文堂, 1978.
- 金 泰吉, 小說文學에 나타난 韓國人의 價値觀 一志社. 1977.
- 李 効再, 女性役割의 問題點, 아세아여성연구 1969.
- 金 用淑, 傳統的 婦德의 그 批判——오늘날의 時點에서——學生生活研究 11, 淑大, 1977.
- 孫 圭複, 韓國 女性教育思想에 關한 研究(I) ——儒學者의 女性觀을 中心으로——教育史教育哲學, 2號, 1978.
- 朴 京子, 韓國近代家政教育에 關한 研究——15C 부터 19C 末을 中心으로——, 誠信女師大 論文集 第六輯, 1973.
- 張 明郁, 家庭管理學, 敎文社. 1977.
- 金 容旭, 李 琦淑, 韓國의 姑婦關係. 靑林閣 1977.
- 정 요섭, 朝鮮王朝時代에 있어서 女性의 社會的位置. 亞細亞女性研究, 1973.
- 김 인자, 한국여성의 교육적인 인간상의 변천 과정. 아세아 여성연구, 1973.
- 김 태길, 한국의 가족과 가족주의, 아세아 여성연구, 1973.
- 고 용복, 한국사회에서의 여성, 아세아 여성연구, 1971.
- 김 지용, 내혼에 비취진 이조여인들의 생활상. 아세아 여성연구, 1998.
- 金 貞愛, 女學生이 尊敬하는 女性像에 關한 調査研究, 1978.
- Michelle zimbalist Rosaldo and Iouise Lamphere, Woman Culture & Scicty.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1974.